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10월 19일

ISSN 1976-0507 Vol. 4 No. 39



김 규 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부연구위원 (keiokim@kiep.go.kr, Tel: 3460-1017)

- ▣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중 갈등이 중국의 ‘승리’로 일단락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금수조치와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었음.

 - 중국 상무부는 ‘금수조치’를 부인(9. 25)하였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통관허가 거부, 화물 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10. 5)함.
- ▣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는 2010년도 수출쿼터를 전년대비 40% 정도 삭감한 금년 7월부터 시작되었음.

 - 수출쿼터의 대폭 삭감으로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의 9월 말 가격은 작년 말보다 2.5배, 세륨은 무려 5.5배 이상 급등함.
 - 일본에서는 중국정부가 일본기업에게 첨단기술이나 생산거점 이전 압력을 가하기 위해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삭감하고 센카쿠 분쟁을 빌미로 금수조치를 단행하였다는 견해가 확산됨.
- ▣ 일본정부와 기업은 이전부터 다각적인 희토류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는 2009년 7월 ‘희귀금속확보전략’을 수립하였고, 기업들도 조달루트의 다각화나 대체재 개발, 사용량절감 기술개발, 리사이클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자원확보 및 대체기술 개발에는 현지 정부의 채굴 허가권 문제와 신기술의 실용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최소 3~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일·중 센카쿠 분쟁과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금수조치

- 지난 9월 7일 센카쿠열도¹⁾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간 충돌 사건을 둘러싼 일·중 분쟁은 중국의 외교적 ‘승리’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
- 이번 분쟁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중국정부의 강경 대응이 현격한 대조를 보임.
- 일본정부는 이번 사건을 중국 어선의 공무집행방해로 인식하여 사법부의 처리 과정을 거의 수방관함.
- 이에 반해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 9월 23일 UN총회 연설에서 “국가주권과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굴복도 타협도 없다”고 밝힌 바와 같이, 이를 국가주권 문제로 인식함.
- 특히, 중국은 장관급 일·중교류 중단,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 요청, 도요타자동차 임원의 뇌물공여혐의 조사 착수 등 대대적인 대일공세에 나섰고, 결국 일본정부로부터 중국인 선장 석방(9. 24)이라는 조치를 이끌어 냄.

표 1.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최근의 일·중 분쟁관련 주요 일지

일자	주요 사건
9. 7~9. 8	일본, 자국 해상방위청 순시선 2척과 중국어선 충돌로 중국어선 나포
9. 11	중국, 東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관한 조약체결 교섭 연기
9. 18	중국인들, 류타오후 사건* 79주년 맞아 베이징 일본대사관 등지에서 반일시위
9. 19	- 일본, 중국인 선장 구류연장 결정 - 중국, 장관급 교류 중단 선언
9. 20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일본 건설회사 후지타 사원 4명 군사시설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
9. 21	- 중국,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및 일반화물의 통관검사 강화. 중국 상무부는 이를 부정(9. 25) - 중국 원자바오 총리, 선장 즉각 석방 촉구 및 미이행시 추가 조치 단행 경고
9. 23	-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 자국 여행사에 일본여행 자제 요청 - UN 총회 후 미·일 정상회담
9. 24	- 중국 항저우시(杭州市), 도요타자동차 임원의 뇌물공여혐의 조사 착수 - 중국, 센카쿠열도 해역에 어업감시선 2척 파견·상주, 일본 해상방위청도 순시선 6척 급파(9. 27) - 일본, 중국인 선장 석방
9. 25	중국 외무성, 일본의 사죄·배상 요구
9. 27	일본, 충돌로 파손된 순시선의 수리비용 청구할 계획이라고 발표
9. 28	- 일본신문들, 중국의 대일 희토류 통관절차 일부 재개 보도 - 중국 고위관리, “대일 대립관계가 거의 끝났다”고 관계 회복 시사
9. 30	중국, 일본 후지타 사원 4명 중 3명 석방(나머지 1명은 10월 9일 석방)
10. 4	양국 총리 회담에서 각료급 및 민간교류 재개 합의

주: * 1931년 일본 관동군이 선양(瀋陽) 교외 류타오후(柳條湖)에서 남만주철도 노선을 폭파하는 자작극을 벌여 만주사변의 발단이 된 사건.

1) 오키나와와 대만 중간지점의 東중국해에 위치한 열도로서, 일본에서는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에서는 釣魚島(다오위다오), 대만에서는 釣魚台列嶼(다오위따이리에위)라고 부르고 있으나,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센카쿠열도라 칭함.

- 이번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중 갈등에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굴복’ 하게 된 데에는 일·중 마찰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 미국의 의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그 근거로 UN 총회 직후 이루어진 미·일정상회담(9. 23)에서 미국 측이 일본 측에 사태의 조기 수습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 일본정부가 전격적으로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일본의 일부 언론은 미국 오바마 정권이 일본에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사소한 분란이 아니라 미일동맹의 재구축과 이를 통한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 구축에 대한 협력이라고 보도함 (『日本經濟新聞』, 2010. 9. 25).
 - 미국은 지난 9월 24일,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ASEAN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우리나라와는 지난 7월 최초로 외무·국방장관 회담(2+2)을 개최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접근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다시 말해 대중 포위망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번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중간 분쟁 과정에서는 중국의 대일 희토류²⁾ ‘금수조치’와 이에 대한 일본 측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었음.
 - 지난 9월 21일 일본이 중국인 선장 석방을 보류하자 중국은 희토류의 對日 수출을 금지(통관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28일에는 다시 통관절차를 일부 재개함.³⁾
 - 물론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를 부인(9.25)하였지만, 일본정부는 희토류는 물론 다른 제품의 수출규제 여부를 조사하여 금수조치로 판명되면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9. 28).
 -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0월 5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허가증 신청 시 영문신청서 외에 중국어 서류 요구, 통관허가 거부, 화물선적 거부 및 화물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남.
 -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중국 당국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음.

2) 희토류(rare earths)란 총괄하여 하나의 희귀금속(rare metals)으로 간주되나, 원소주기율표상 57번 란탄 이후의 15개 원소, 스칸듐과 이트륨을 더한 17개 원소를 일컫는 용어임. 이들 17개 원소 가운데 현재 주로 사용되는 것은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세륨, 란탄 등인데,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HDD나 핸드폰, FA(공장자동화) 기기, 하이테크 가전제품의 영구자석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에도 사용됨. 또한 세륨은 자동차·빌딩의 유리나 배기가스 촉매, 유리·반도체의 연마제, 조명 형광체 등에 사용되며, 란탄은 촉매, 광학렌즈, 석유정제, 전자부품에 사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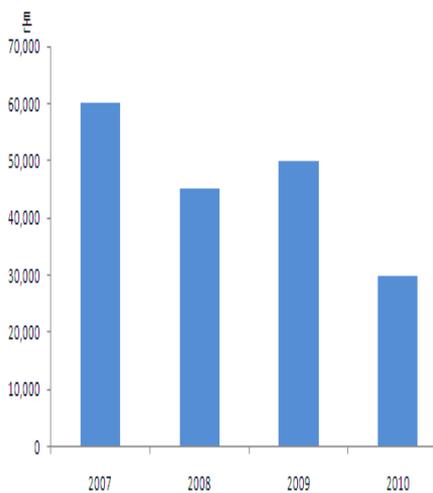
3)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검사가 여전히 까다롭다는 점을 들어 아직 수출이 재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힘(10. 5).

2.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와 일본의 반응

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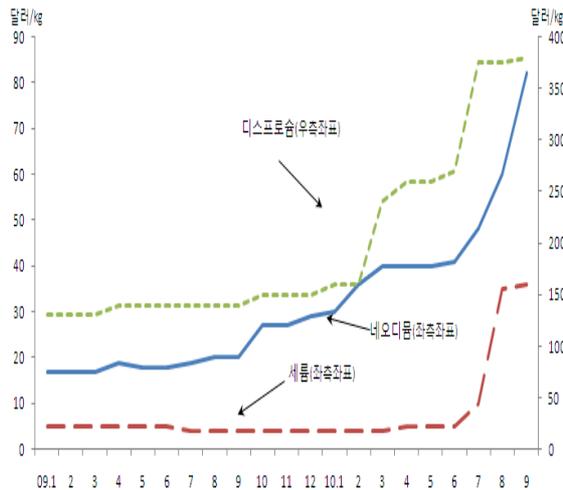
- 일·중 양국간에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이 점화된 시점은 중국정부가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대폭 축소한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감.
- 중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희토류의 2010년도 하반기 수출쿼터를 전년 동기보다 70% 줄어든 약 8,000톤으로 정하였고, 이로써 2010년 총수출쿼터는 전년에 비해 약 40%가 줄어든 3만 258톤으로 급감함.
- 중국정부는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매년 2회에 걸쳐 정하고, 2006년부터는 수출세도 부과하고 있는데 2008년 1월에는 수출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중국의 수출쿼터 축소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하이테크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희토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일본 국내의 희토류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음.
- 지난 7월 중국의 수출쿼터 삭감 이후 급등한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의 9월 말 가격은 작년 말보다 2.5배, 세륨은 무려 5.5배 이상 급등한 상태임.

그림 1.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 추이



: 『週刊東洋經濟』(2010. 10. 9).

그림 2. 일본의 주요 희토류 제품 수입가격 추이



- 이에 일본기업들은 재고비축 등으로 아직 제품생산에는 차질이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표 2.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에 따른 주요 일본기업의 영향과 대책

기업	용도	영향	향후 대책
도요타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재고비축으로 6개월간은 영향 없음	부품의 리사이클 등 검토
히타치제작소	모터 등	재고비축으로 영향 없음	대체재료로 산화철 검토
쇼와電工	액정이나 HDD용 유리기관 제조에 사용되는 세륨 연마제	내년 초까지의 공급물량 확보	11월부터 세륨 연마제 가격 4배 인상
신에츠화학	자동차용 등 자석	현재로선 재고로 대응가능	합금형태로의 수입 검토
다이도특수강	HDD 모터용 자석	현재로선 영향 없음	중국 진출 자석 공장 확충

자료: 『日本經濟新聞』(2010. 9. 25).

- 중국정부가 2011년에도 수출쿼터를 금년 수준인 3만 톤으로 유지할 경우 일본은 1만 톤 정도의 공급부족을 예상하고 있음.
- 한편에서는 중국정부의 수출쿼터 축소로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자 쇼와電工이 제품 가격의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비용전가' 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를 계기로 일본 기업에 희토류 확보 문제는 기업의 생존과 결부되는 중대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줌.
- 2009년 일본의 희토류 소비량은 약 2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20%, 미국과 유럽의 2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9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함.
- 2009년의 경우, 중국의 연간 희토류 수출량은 5만 톤이었으며 수출지역은 일본이 5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미국 17%, 프랑스 6% 순이었음.
- 특히 희토류는 일본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업체들에 필수불가결한 생산요소임.
- 희토류 중에서도 디스프로슘은 전기자동차 생산·보급에 필수적인데, 중국 이외에는 마땅한 광상(鑛床)이 없다는 데 고심이 큼.

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배경

-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명분은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국내 환경보호, 내수 우선에 있음.
- 이러한 논거 중에서도 환경보호 관점에서 보면, 광석에서 희토류를 채취하고 남는 잔토

에는 유해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무분별한 희토류 채취는 환경오염으로 직결한다는 점에서 수출규제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임.

■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를 산업 전략과 연계하여 해석함.

- 일본에서는 중국정부가 일본기업에게 첨단기술이나 생산거점 이전 압력을 가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및 대일금수 '카드' 를 꺼냈다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임.
- 중국기업으로서는 하이브리드카나 IT 관련기기, 하이테크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첨단 기술이 절실하나, 일본 기업들은 기술유출 문제로 중국으로의 생산이전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함.
- 예를 들어 현재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경우, 일부 중국기업들도 일본 히타치금속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제공받아 생산하고 있으나 용도가 전동자전거나 장난감, 스피커 등에 머물고 있어, 일본기업의 중국 진출을 통한 기술이전이 절실한 상황임.
- 또한 중국과 '자석전쟁' 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지는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지난 2월 지린성 창춘 당국에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 의 생산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는 도요타자동차의 영구자석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됨 (『日本經濟新聞』, 2010. 9. 26).
- 한편 등소평 국가주석이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라고 공언한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전부터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3. 일본 정부·기업의 희토류 확보 전략

가. 일본정부의 희토류 공급 대책

- 일본정부는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에서의 채굴권 확보, 리사이클 추진, 대체재 개발, 국가비축이라는 4대 방향으로 희토류 확보 전략을 수립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09년 7월 '희귀금속확보전략' 을 수립하였고, 조만간 이를 더욱 구체화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우선, 희토류의 대체재 개발과 관련하여 HDD용 유리연마제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에 사용되는 세륨의 대체 기술개발을 가속화함.

- 리사이클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희토류의 사용량을 줄이는 설비 도입의 촉진과 같은 산업고도화 지원책을 실시함.
- 해외광산의 채굴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국 이외에 카자흐스탄이나 베트남 등 해외광산 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를 확대함.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2일 바트볼드 몽골 총리와 회담, 희토류 광산개발 협력에 합의함.
- 마에하라(前原誠司) 일본 외무장관은 백금이나 바나듐과 같은 희귀광물 전체를 대상으로 재외공관을 통한 정보수집이나 공적개발원조(ODA), 기술공여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희귀광물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힘(10. 1).
- 경제산업성은 10월 중순경 몽골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희토류 탐사에 착수하고, 풍부한 매장량이 기대되는 남아프리카와 브라질 등지에서도 조만간 시굴이나 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일본 민주당 정권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는 5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비 항목에 희토류의 대체재 개발 지원을 포함한다는 방침임.
- 일본은 세계 다른 매장지역의 채굴 확대로 지금과 같이 희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현상은 2013년에는 70%이하로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마운틴패스 광산과 호주 서부의 마운트웰드 광산에서 2012년부터 연간 2만 톤의 희토류를 생산한다는 계획임.
- 미국의 경우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희토류 생산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점차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거의 희토류 생산을 중단한 상태임.

표 3. 주요 국가별 희토류 매장·생산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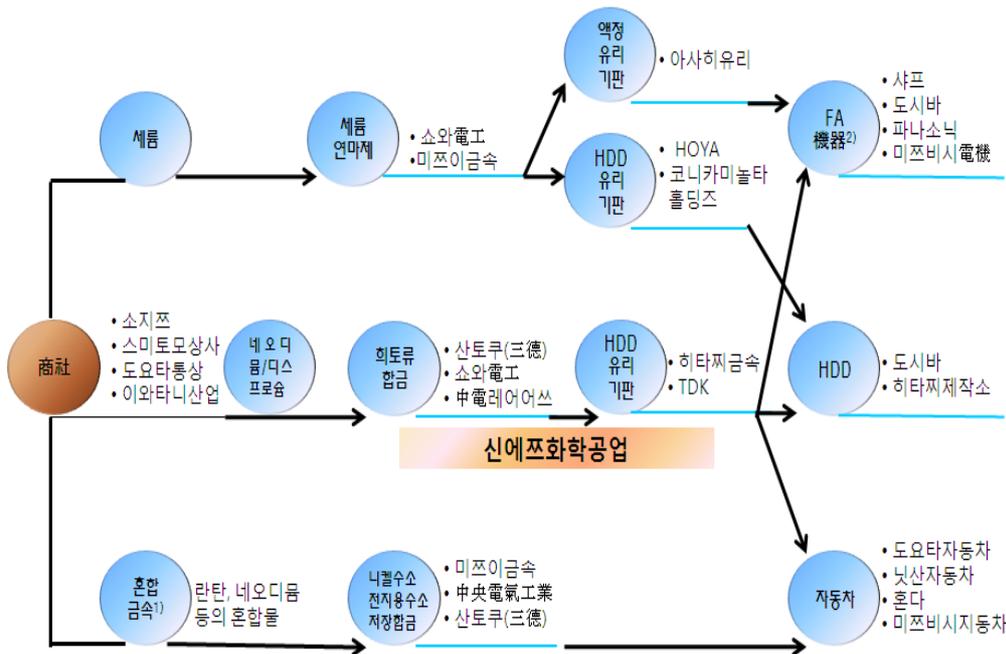
국가	생산량				매장량	
	2006년		2009년		2009년	
	톤	비중(%)	톤	비중(%)	천 톤	비중(%)
중국	120,000	97.6	120,000	96.8	36,000	36.4
CIS	n.a		n.a		19,000	19.2
미국	-		-		13,000	13.1
호주	-		-		5,400	5.4
인도	2,700	2.2	2,700	2.2	3,100	3.1
브라질	n.a		650	0.5	48	-
말레이시아	200	0.1	380	0.3	30	-
기타	400	0.3	n.a		22,000	22.2
총계	123,000	100	124,000	100	99,000	100

자료: USGS(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U.S. Geological Survey), 각년 호.

나. 일본기업의 희토류 조달·가공, 공급 시스템 및 대체기술 개발 현황

- 일본기업들은 희토류를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제조업체들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의 경우, 신에츠화학공업(信越化学工業)이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이들 원료를 바탕으로 영구자석을 생산하고, 이 중 일부는 HDD 헤드를 움직이는 모터와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 그리고 하이브리드카의 모터에 사용됨.
- 쇼와電工은 상사(商社)들로부터 세륨을 조달하여 연마제로 가공한 뒤 아사히유리(旭硝子)에 공급하고, 아사히유리는 이것을 액정유리 기판 제작에 사용하며 그 기판은 다시 샤프와 같은 가전업체들에게 공급됨.

그림 3. 일본에서의 희토류 조달 및 가공, 공급 시스템



주: 1) 혼합금속(mixed metal)이란 복수의 희토류 원소가 함유된 합금을 말함.
 2) FA機器란 컴퓨터 제어기술을 이용하여 공장을 자동화하는 기기를 말함.
 자료: 『日経ヴェリタス』(2010. 10. 3).

- 일본기업들은 희토류의 조달루트 다각화나 대체재 개발, 사용량절감 기술개발, 리사이클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해외 조달루트의 대안지역으로는 베트남,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호주 등이 부각

-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베트남에서 광맥을 발견하였고, 현재는 도요타通商과 소지츠(双日)가 채굴권 교섭 중임.
- 스미토모상사(商事)는 지난 6월 카자흐스탄 국영 원자력회사와 공동으로 우라늄 광석 잔해물에서 희토류를 채취하는 사업을 개시, 2012년부터는 일본의 연간 수입량(2009년 2만 8천 톤)의 10% 정도를 생산한다는 계획임. 도시바도 동일 사업을 카자흐스탄에서 계획 중임.
- 오니즈카유리(鬼塚硝子)는 세륨의 수입처를 중국에서 에스토니아로 전환하고, 향후에는 호주 등지로 다각화한다는 계획임.
- 도요타자동차는 계열사인 아이치제강(愛知製鋼)을 통해 디스프로슘을 사용하지 않는 본드자석 개발에 나서고 있음.
-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개발은 영구자석 분야에서 활발함.
- 신에츠화학공업(信越化学工業), 히타찌금속(日立金属), TDK는 고성능 영구자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희토류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기술개발에 성공
- 다이도특수강(大同特殊鋼)과 다이도전자(ダイド電子)는 디스프로슘의 사용량을 절반정도로 줄였음에도 자력은 크게 개선된 자석을 공동 개발(2010. 7)하였고, 다이도전자가 2011년부터 각종 차재(車載) 모터, 산업용기기용 모터, 가전용 모터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임.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네오디뮴이나 디스프로슘과 같은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하이브리드카용 고성능 자석 모터를 개발하였고, 조기 실용화에 나서겠다고 발표(9. 29)함.
- 자석이나 합금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금속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절삭쓰레기의 회수·재생과 같은 리사이클 사업도 활발함.
- 도요타자동차가 하이브리드카 부품의 리사이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는 희토류 자석의 회수와 재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2013년부터 희토류의 리사이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임.
- 중앙전기공업(中央電気工業)은 2011년 초반 조업개시를 목표로 희토류 재생공장을 베트남에 건설(투자액: 약 72억 원)하여 일본기업으로부터 구입한 폐금속을 처리한 다음, 다시 일본 기업에 재생소재로 판매한다는 계획임.
- 미쯔비시머티어리얼(三菱マテリアル)은 2009년 10월부터 에어컨 압축기를 해체하여 자석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디스프로슘을 회수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함.

4. 시사점

- 이번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부각된 일·중 간 희토류 ‘마찰’은 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줌.
 - 일본정부는 2009년 7월 ‘희귀금속확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상기 전략 중 희토류 국가비축은 전략 수립 이후 희토류 가격의 급등으로 매입 기회를 상실하였고, 해외 채굴권 확보는 현지 정부의 채굴 허가권 문제와 자금 문제 등으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희토류의 신전략광물 지정과 국가비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숙지하여 신성장동력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일본기업들 역시 대체재 개발이나 사용량절감 기술개발, 리사이클 등과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신기술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최소한 3~4년이 소요됨.
 - 일본기업들의 대체재 개발이나 사용량절감 기술개발은 비용문제로 인해 아직 양산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신기술의 실용화에는 내구성 평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 희토류의 리사이클 역시 폐기 가전제품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움직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에는 일본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일본기업의 경우 이미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는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나, 일부 업체들이 ‘비용전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으로부터 관련 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KIEP**